야만의 도시에서 야망의 도시로

2010.09.28(화)

서울공대 건설환경공학부 정창무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여기는 천국이예요."

•이 천국의 이름은 브라질의 상파울루 서편에 위치하고 있는 알파빌라이다.

•넓이는 정확하게 축구경기장 44개 정도 되는 면적이다.

•천국은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도 포착할 수 있는 탐조등과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한 수미터 높이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도심지에서 부랑자들과 저항자들을 두려워 하는 대도시 주민들, 자기나라의 사회현실에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유럽 또는 그보다 더 풍요로운 미국의 몇몇 지역에 살고 있는 보통의 가족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주민들한테는 이 도시가 정말 이상적인 도피처이다.

•… 모든 방문객들은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방문하고자 하는 입주자의 대답을 듣고서야 들여보내진다. 대형차량들은 꼼꼼하게 조사 받는다.

•경비원들은 항상 배달원이나 건축노동자들의 몸 전체를 더듬어본다. 그들이 뭔가 훔쳐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스 피터 마르틴, 하랄드 슈만 <세계화의 덫> 중에서)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 상파울로에서 23km 떨어진 알파빌은 33개의 경비구역(gated areas)으로 구성되어 있음
- 2만명의 거주민, 2300개의 사업체, 11개의 학교와 대학, 15만명의 유동인구를 지닌 작은 도시
- 1100명이 넘는 경찰과 경비원들이 커뮤니티의 경비를 담당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Alphaville,_S%C3%A3o_Paulo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http://www.youtube.com/alphavilleurbanismo#p/a/u/1/Qd5_6jQJcFA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http://www.alphaville.com.br/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http://www.alphaville.com.br/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http://www.alphaville.com.br/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http://2007rotch.blogspot.com/2008/01/sao-paulo.html

Alphaville, Sao Paulo의 초대



http://2007rotch.blogspot.com/2008/01/sao-paulo.html

Alphaville, 이웃동네



http://2007rotch.blogspot.com/2008/01/sao-paulo.html

Alphaville 이웃동네



http://2007rotch.blogspot.com/2008/01/sao-paulo.html

Alphaville 이웃동네





http://2007rotch.blogspot.com/2008/01/sao-paulo.html

Alphaville 이웃동네





http://2007rotch.blogspot.com/2008/01/sao-paulo.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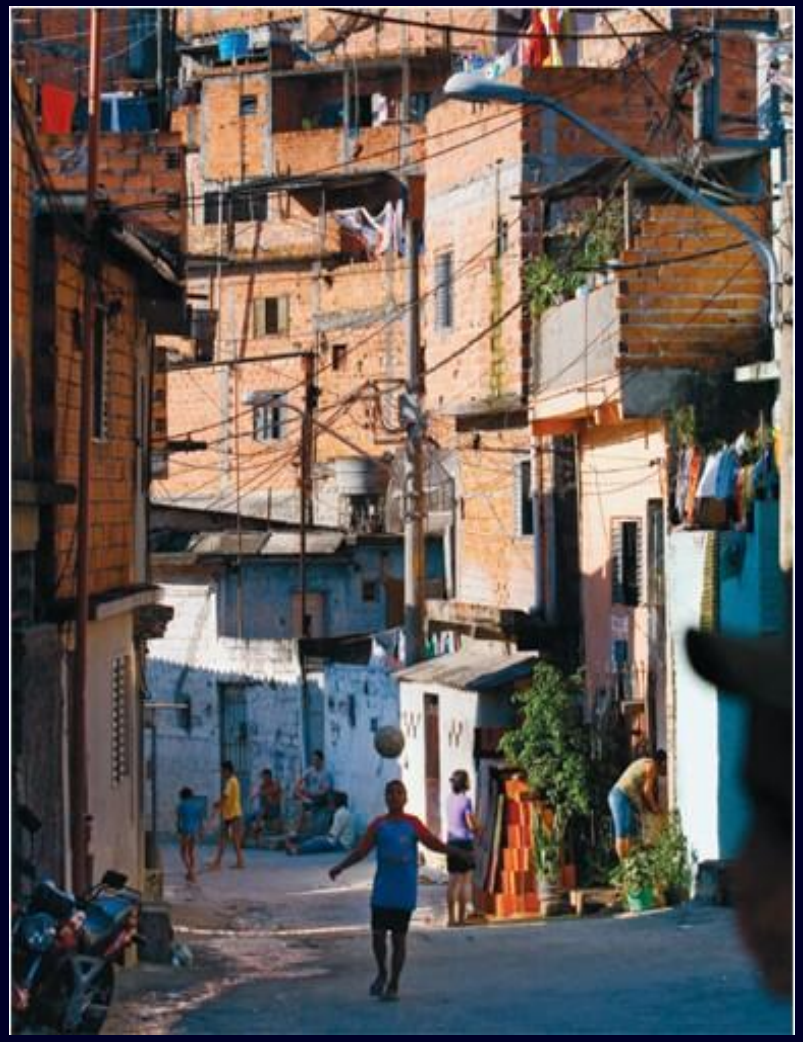
Alphaville 이웃동네





http://2007rotch.blogspot.com/2008/01/sao-paulo.html

Alphaville 이웃동네



http://www.urban-age.net/10_cities/08_saoPaulo/_essays/SA_Miraglia.html



Sweet children of the favelas in Sao Paolo

http://www.worldproutassembly.org/archives/2006/05/brazil_the_soci.html

Sao Paulo, 폭력과 범죄의 도시



http://blogs.kansascity.com/crime_scene/2006/05/16/index.html

Sao Paulo, 폭력과 범죄의 도시



A man takes a picture of a burnt-out bus in Sao Pao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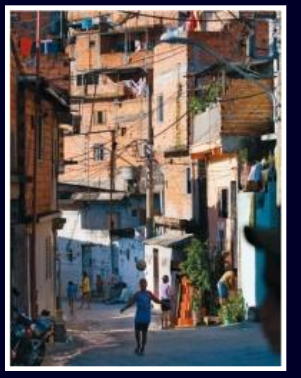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southamerica/brazil/1523904/Six-killed-as-crime-gangs-wage-new-war-in-Sao-Paulo.html

Sao Paulo, 폭력과 범죄의 도시

브라질의 경제수도, 남미 최대의 도시, 인구 1100만명의 상파울로는 자본주의적 도시개발의 비합리성을 증명하는 도시이다. 파벨라(슬럼) 지역의 절대빈곤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최고의 사치품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도시다.

-http://www.worldproutassembly.org/archives/2006/05/brazil_the_soci.html





동시대에 가장 흥미진진한 건축물로 뒤덮인 아름다운 주택가 거리를 걷노라면 이상한 기분이 든다. 당신은 곧 거대한 담장 가운데 박힌, 밖을 감시하기 위해 어둡게 선팅한 유리창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http://2007rotch.blogspot.com/2008/01/sao-paulo.html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물리적인 방벽과 감사카메라 설치로 인한 공간의 단절은 시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단절과 소외가 민주주의 상징인 공공공간을 위협하고 있다.

-http://2007rotch.blogspot.com/2008/01/sao-paulo.htm



서울의 알파빌라? 트리움하우스 5차

공시가격이 50억 4천만원 정도고(실제 매매가격은 70억이 넘는다고 함). 모두 빌라로 되어 있으며, 가장 큰 집의 경우 196평으로 방 8 개 화장실 4개 주차대수 6대에 집마다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스위스의 민방위 규정에 의거한 철벽 방공호(!!)가 설치되어 있어 핵폭발에도 안전하며 강한 지진(진도 7)에도 견디는 면진구조를 갖춘 집이다. 바닥재는 이탈리아 산, 식기세척기와 여러 가전제품은 독일과 미국산 등 대부분 수입 최고급 자재를 이용하였다.

- http://rrun79.tistory.com/115









분당의 알파빌라? - 파크뷰



천장 높이 4m에 거실 좌우에 꾸며진 정원 크기만 대략 30평이 넘어보이는 펜트하우스, 연간 회원권이 20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스포츠센터, 외국자동차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주차장 …

-호화 주상복합 · 오피스텔 '천국' - [헤럴드경제 2006-03-08 14:20]



http://blogfiles5.naver.net/data5/2005/3/1/100/%BA%D0%B4%E7_%C6%C4%C5%A9%BA%E4_%BA%D0%BC%F6-anstjddk1118.jpg

서울의 자화상

MBC 다큐 “인간의도시” 제작진은 2001년 11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강남역 부근 대로에 사람이 쓰러져 누워있는 상황을 연출해 놓고 3시간 가량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고발을 준비했다.

한나절이나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도시.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인간소외가 짓누르는 21세기 서울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http://photo.naver.com/forum.nhn?m=view&article.articleId=159&boardId=34

경향뉴스 2002년 2월 17일, "MBC 도시문제 다룬 다큐‘인간의 도시’"
http://news.khan.co.kr/section/khan_art_view.html?mode=view&artid=200202171727411&code=361007

현대 한국도시



http://blog.naver.com/metalian71/70060657722

현대 한국도시



12일 퇴근시간 무렵 서울 내부순환도로 성산램프에서 한 차량이 진입을 위해 줄지어있는 차량사이로 끼어들고 있다…

– 경향신문, 2006-01-12, “[이젠, 바꿉시다] 모두 바쁜 출근길…끼어들기, 삼갑시다!”



<김여사식 끼여들기>

–http://cafe.naver.com/rush02/81

"가난 때문에..."서러운 죽음

대구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40분쯤 대구 불로동 김모(39·노동)씨 집에서 김씨의 아들(4)이 숨져있는 것을 불로성당 사회복지위원장 구모(53)씨 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구씨는 "아이 엄마가 '굶어죽을 것 같다'며 도움을 청해 와 성당 신자들과 함께 김치와 쌀을 가지고 갔다"며 "평소에 몸이 아픈 둘째 아이의 안부를 묻자 김씨가 장롱문을 열어 시신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숨진 김군은 미숙아로 혼자서는 밥을 잘 먹지 못했으며 발견 당시에도 심하게 굶주린 듯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다.

방안에서 울고있던 김씨의 딸(2)도 심각한 영양실조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김군의 어머니(39)는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데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정신장애진단을 한번도 받지 못하고 장애인 등록도 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가족은 관할 행정기관은 물론 수년간 한 동네에서 살아온 이웃들로부터도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3남매를 둔 김씨는 단칸방에 살면서 최근 일감을 구하지 못했고 가족들은 매일 하루 한끼는 굶어야 했다.

이웃 주민들 누구도 기초생활 수급권자 신청이나 장애인 등록에 대해 제대로 조언을 해주지 않아 이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 문화일보, 2004-12-20, 「"가난때문에..."서러운 죽음」



http://img.hani.co.kr/section-kisa/2005/01/05/02100500012005010554 2_73_1.jpg

또 19일 새벽 3시쯤 전북 남원시 덕과면 수촌마을 김모(86)할머니가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방에 촛불을 켜고 잠을 자다 불이나자 정신지체 장애 2급인 박모(44)씨와 또다른 아들(40) 한명을 먼저 집밖으로 내보낸 뒤 자신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마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마을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비만으로 두 아들과 함께 살아왔으며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촛불생활을 하다 이같은 비극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야만의 도시 – 2009년 1월 20일, 용산



» 지난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점거농성을 하는 용산구 한강로3가 한 빌딩에서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서자 망루가 화염에 뒤덮이고 있다. 사진 한겨레 김명진 기자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720.html

야만의 도시-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어제 진압에 들어간 김경찰청장 내정자의 경찰부대는 21세기의 경찰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관군과 같습니다.

기근 때문에 농민들이 먹고 살게 없을 때 성안의 곡식을 먹기 위해 쳐들어가는 겁니다.

관군은 일본군·중국군 등 외국 군대가 들어갔을 때는 백전백패했습니다.

동족을 상대로 했을 때는 백전백승 했습니다.

어제의 경찰은 조선시대 어느날 삼지창으로 동족을 찔렀던 조선시대의 관군과 똑같습니다."

그는 "한국의 뉴타운도 집 문제고 <난쏘공>도 집 문제"라며 "그러나 한국이 부족한 것은 집이 아니라 지혜"라고 꼬집었다.

또 "우선 한국 경제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가난뱅이를 그냥 죽으라고 놔두는 것은 학살과 같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http://blog.naver.com/0109sonamu/110041155882

국보1호인 숭례문이 불타 무너졌다(08년 2월 10일)



화재 다음날, 경찰들이 숭례문 주변을 지키고 있다.

yakcho.egloos.com/1005568

국보1호인 숭례문이 불타 무너졌다(08년 2월 10일)



숭례문과 분수대

yakcho.egloos.com/1005568

국보1호인 숭례문이 불타 무너졌다(08년 2월 10일)



야경 (서쪽)

yakcho.egloos.com/1005568

국보1호인 숭례문이 불타 무너졌다(08년 2월 10일)



교대를 마친 수문장

yakcho.egloos.com/1005568

국보1호인 숭례문이 불타 무너졌다(08년 2월 10일)



2월 11일 오전 붕괴한 숭례문



전소된 후의 숭례문

yakcho.egloos.com/1005568

국보1호인 숭례문이 불타 무너졌다(08년 2월 10일)



2월 11일 오전 붕괴한 숭례문



전소된 후의 숭례문

yakcho.egloos.com/1005568

국보1호인 숭례문이 불타 무너졌다(08년 2월 10일)





http://cfs5.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Y1NDVAZnM1LnRpc3RvcnkuY29tOi9hdHRhY2gvMC8wOTAwMDAwMDAwMTQuanBn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08/0215/IE000870091_STD.jpg

채씨는 1997~1998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신의 토지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 관계기관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회적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창경궁에 이어 숭례문까지 연속 방화에 나선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2008-02-12 12:12 "숭례문 방화범 `열차 테러도 생각했다 포기'"

고대 그리스의 문화도시 – 열린 도시

고대 그리스 시민들은 그들이 무엇을 소유하던 그 자신의 천부의 권리로 생각했고, 시민사이에는 마치 친구사이처럼 비밀도 전문직업의 벽도, 불평등도 없었다. 자유롭게 태어난 시민은 그의 신분이나 경제적, 직업적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았으며, 그에게는 도시생활의 모든 측면이 개방되었으며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시장, 작업장, 법정, 시의회, 체육관 등 모든 분야에 종사할 수 있었으며, 외과의사나 직공이 똑 같은 월급을 받았다. 석공과 산파였던 두 노동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소크라테스는 석공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다른 그리스도시의 자유민과 마찬가지로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는 운동가였으며, 병사들 사이에서는 병사였으며, 철학가들 사이에서는 철학가였다.

아테네의 모든 자유시민들은 요청에 의해, 자신의 무장을 마련하여 병역을 수행하였으며, 의회와 6천명의 배심원을 가진 법정에서 봉사하였다.

예술활동의 참여 역시 시민의 권리요 봉사였으며, 공공행정 역시 보통 아테네시민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담당하였다.

시민축제를 위해서 매년 2,000여명의 아테네시민이 돌아가면서 서정시나 연극합창의 대사를 외우거나 무용연습을 하여야 했으며, 부수적인 효과로서 대부분의 관중들은 열광적인 관람객뿐만이 아니라, 사후적 연출가, 세련된 비평가로서 축제에 참여하였다.

고대 그리스 도시에 있어서 시민과 도시는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었으며, 도시는 시민을 위한 전인교육의 터전으로 기능하였다.

일과 여가, 이론과 실제, 개인생활과 공공생활이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하고, 예술, 체육, 음악, 대화, 사색, 정치, 사랑, 모험 및 전쟁까지도 보통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도시생활의 어떤 측면도 분절되어 있거나 독점되지 않았다.

– 정창무, 1998, “문화도시를 위하여,” 문화도시·문화복지 32권, pp. 4-8.

아열대 기후가 한국인 삶을 바꾼다



한반도 날씨 ·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		
분야	날씨 · 기후 변화	영향 · 대책
건강	온난화로 기온 상승	말라리아, 쓰쓰가무시병, 세균성이질 등 기후 변화 민감 질병 증가
해양	한반도 해수면 상승	30년간 연평균 3.2㎜에서 1990년대 이후 6.5㎜로 상승
관광	제주도 기온 상승	겨울 한라산 눈꽃축제 사라짐 여름 해수욕장 개장일 3~8일 앞당겨짐
산림	산림 북방한계선 상승	향후 연평균 기온 4도 상승시 한반도 전지역이 난대 산림화, 남부 해안지역은 아열대화 대형 산불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증가
도시	경작지, 녹지 규모 감소	도심 열섬현상 막기 위한 녹지 네트워크 구축
디자인	기후 변화 대응	장마철 습기제거 상품, LCD 날씨 라디오, 친환경 기능성 의류 등 시장 확대

[커버스토리]아열대기후가 한국인 삶을 바꾼다, 2010 09/14 I 위클리경향 892호

아열대 기후가 한국인 삶을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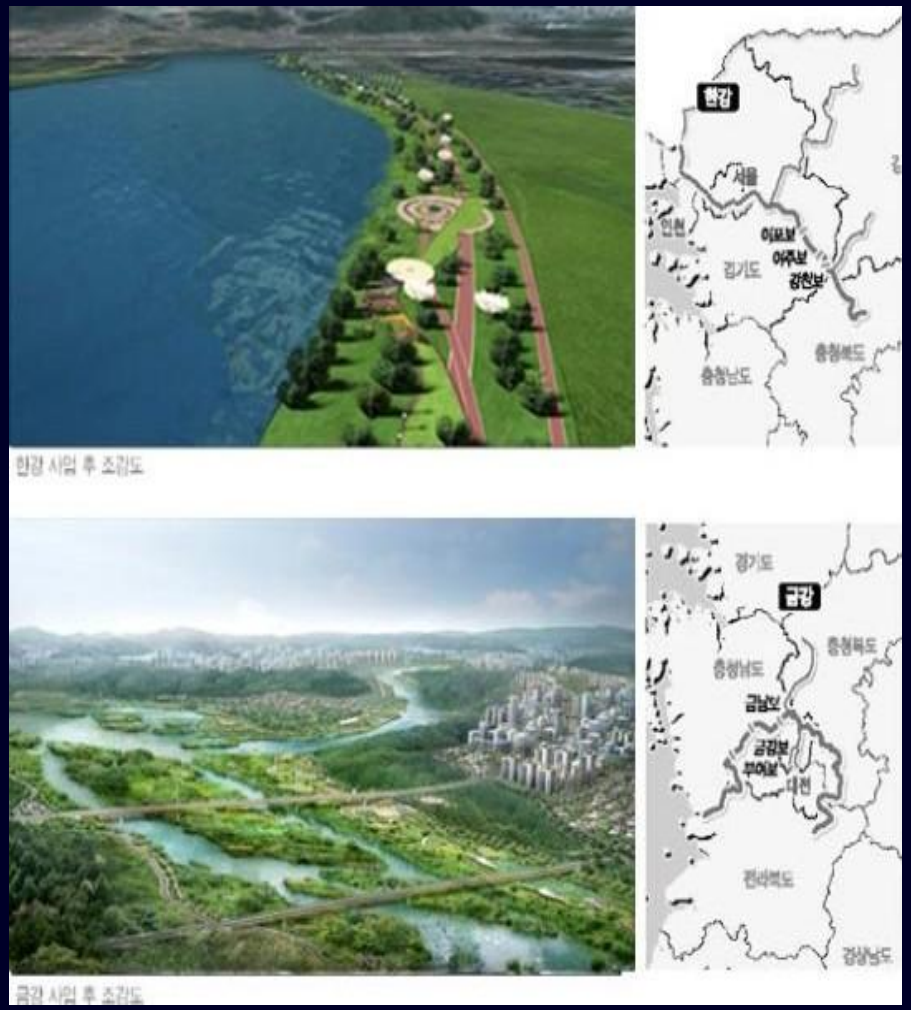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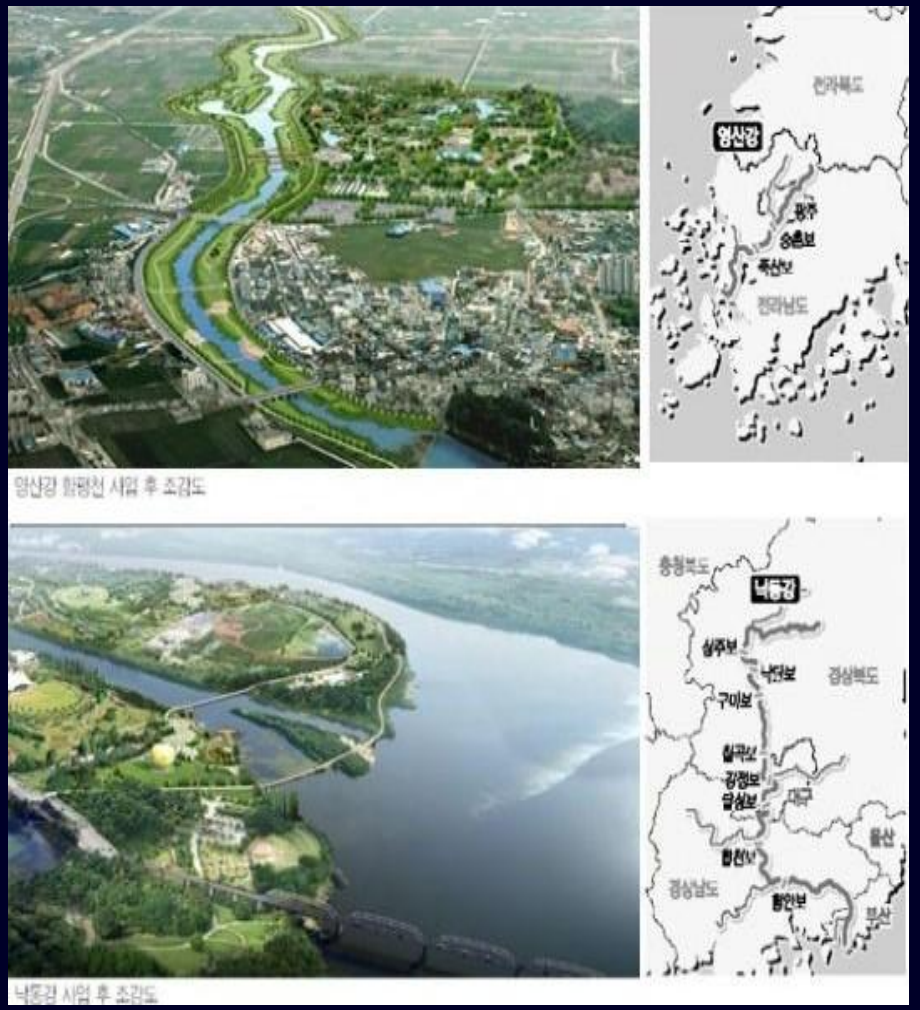
제주 산방산에서 내려다봤을 때 바다 속으로 용이 들어가는 형상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용머리 해안. 최근 들어 하루 두 차례 만조 때마다 4시간씩 바닷물에 잠겨 해수면 상승의 첫 피해 사례로 꼽힌다. 1987년 산책로를 조성할 당시에는 거의 없던 일. 산책로 침수와 함께 직접 채취한 해삼과 멍게 등을 관광객에게 파는 해녀들의 삶터도 사라지고 있다.



안개 낀 소나무숲 오솔길의 고즈넉함과도 이별이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빛을 발하던 소나무도 최근 온난화 앞에서 집단 고사하고 있다. 2090년대에는 남한지역에서는 강원 산간이 유일하고, 북한지역에서도 북쪽에 한해서만 소나무를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애국가 가사 중 '남산 위의 저 소나무'는 삭제될지도 모를 일이다. | 경향신문사

녹색 성장 또는 전쟁?





- 서울경제신문, 2009-06-08, “4대강 살리기] 어떻게 개발되나.”

녹색 성장 또는 전쟁?





15일 경북 상주시 낙동강 상주보 일대에서 열린 '생명의 강을 위한 4대 종단 공동기도회'에 참석한 지율 스님(가운데) 등 종단 관계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어버이 강, 생명의 강"을 외치며 걷고 있다. 상주 | 강윤중 기자

경향신문, 2010-03-15, "4대강 사업저지…손잡은 4대 종단."

http://cafe.naver.com/haeorumvillage/588

녹색 성장 또는 전쟁?

MB "4대강 사업은 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복원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강과 강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를 방문한 아흐메드 조글라프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UNCBD) 사무총장으로부터 ’생물 다양성 협약 공로상‘을 수상한 뒤 “이 상은 서울시장 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서 주는 것이겠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주는 것으로 알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후에 산림이 회복되고 잘 가꿔졌으나 강이 보존 안 되고 주위에 생태가 파괴됐다”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주요 4대강의 생태를 복원하고 주변에 산림 등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젊었을 때 한때 환경보다는 개발에 중점을 두고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중간에 생각과 일하는 자세가 많이 바뀌어 산림 조성 등 생태계 복원이나 환경보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이 공존하면 가장 좋다”며 “하지만 두 개가 상충할 때는 환경 보존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강살리기 사업은 강복원 사업”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뉴스, 2010 -08-24, [MB "4대강 사업은 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복원하는 것"]

…멀쩡한 산을 깎아서 흉물스럽게 세운 태양광 발전기나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용지에 세워진 풍력발전기, 무려 몇 백만㎾ 규모의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이라는 이유 때문에 ‘녹색’ 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1만년 이상, 아니 독일에 따르면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쏟아내는 원자력을 저탄소라는 이유로 ‘녹색’ 에너지라 부른다. 이렇게 되면 녹색과 친환경이 무슨 의미인지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언어도단의 백미는 4대강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 이름 지었다. 16개나 되는 댐을 강 본류를 잘라 줄지어 세우고 강바닥을 평평한 모양이 되도록 모래와 자갈, 암반을 파고 깎아내면서 이를 강을 살리는 일이라 한다. 영어로는 이 ‘살리기’를 ‘restoration’으로 적고 있다. 이는 복원이란 말로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뜻이다. 정부 스스로 국토개조사업이라 부르며 강의 형태를 무자비하게 바꿔 버리면서 이를 복원이라 하니 이쯤 되면 정말 ‘개념 상실’이다…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2010-09-16,** “[환경칼럼]말이 원래 가치를 잃어버릴 때.”

연록파, 청록파, 진록파

환경보전에 대한 입장은 시각과 시야의 범위에 따라 연록(dry green), 청록(shallow green), 진록(dark green)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환경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비해)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며, 아직 문제에 대처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연록주의자들이다. 이들은 과학적 관리를 통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자율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진록주의자들은 환경문제에 대처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합리적 이성을, 또 그 표상으로서 시장이나 공익수행의 도구로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들의 해결책은 지구상에 흩어진 수많은 자급자족 공동체의 형성이며, 이를 위해 전세계 시민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급진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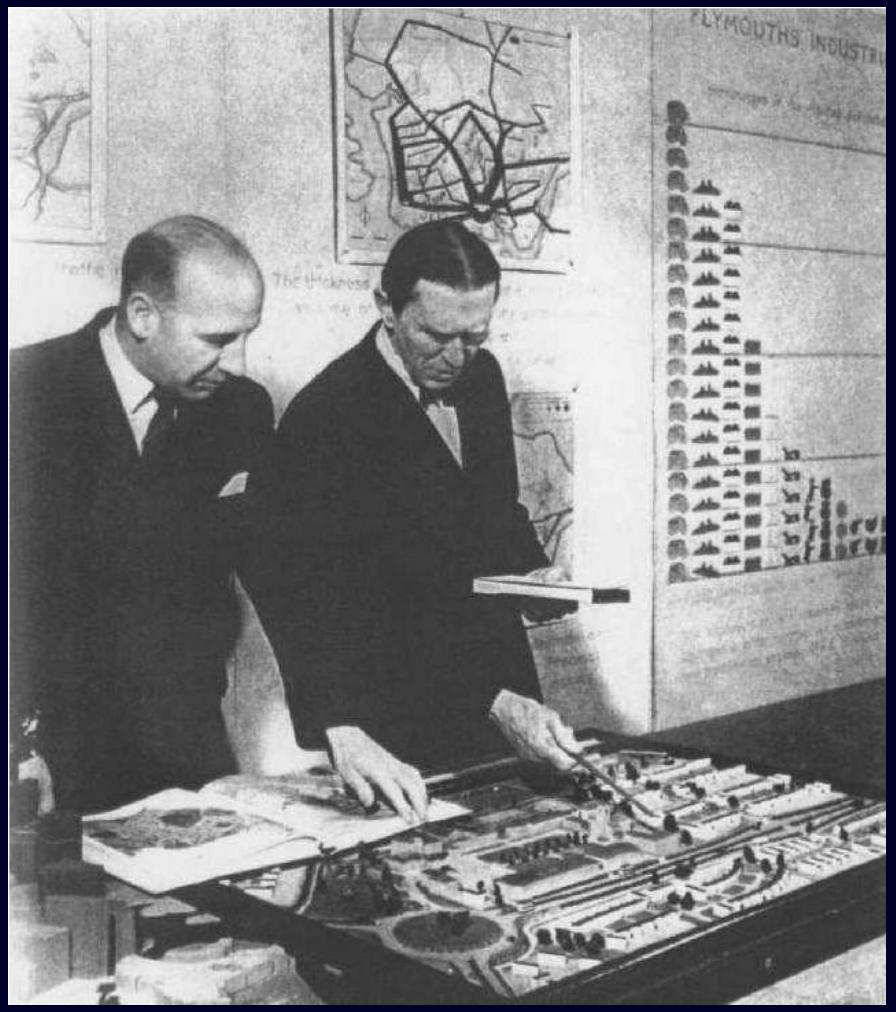
이 두 개의 극단사이에 위치한 청록주의자들은 이상은 「진록」에 두되, 현실은 「연록」에 두자는 절충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진록주의자들의 과격한 이상을 "지속가능한 개발"로 순치하되, 실천은 현실여건을 보아가면서 천천히 하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청록주의자들이 가진 고상한 이상과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유연성 때문에 그들은 곧 현실세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이상과 유연성은 최근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육화되었다. 녹색성장에 대한 이들의 견해는 원칙적으로 녹색을 보전하되,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사항은 최소화하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어중간한 입장으로 인해 진록과 연록주의, 양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며, 자기정체성에 대한 위구(危懼)로 시달리고 있다. 진록주의자인 환경보존론자들의 공격에 대해 이들은 「자연환경보전을 고려한 개발」,「선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후 해제」, 「명확한 조정기준과 절차」, 「지가상승이익의 환수와 투기방지대책 강구」로 맞서고 있으며, 연록주의자들인 환경보전론자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선별하여 부분개발」,「불합리한 지역의 우선 해제」로 대응하고 있지만, 그 어느 편으로부터도 감동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정창무, 1999, "지속가능한 사회건설 위해 자연-인공환경을 조화시켜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정치경제학," 자유공론 통권 393호(1999년 12월호), pp. 121-3.

The men who changed the face of 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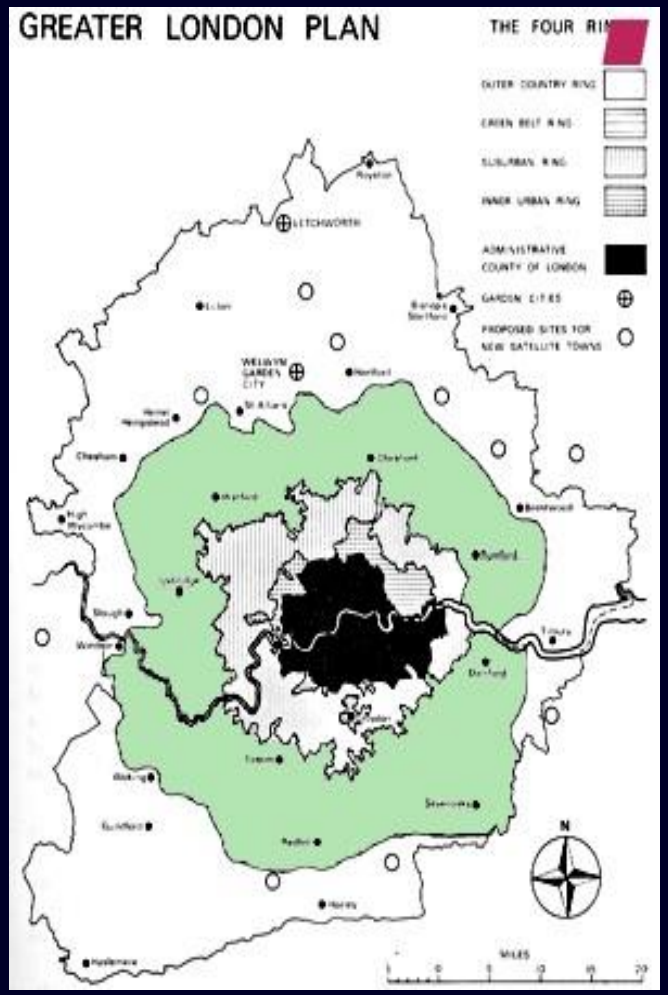
…The number of houses lost in these periods of destruction has never been accurately calculated but, as the great Sir Christopher was commissioned to rebuild the capital in 1666, second time around the job was given to Sir Patrick Abercromb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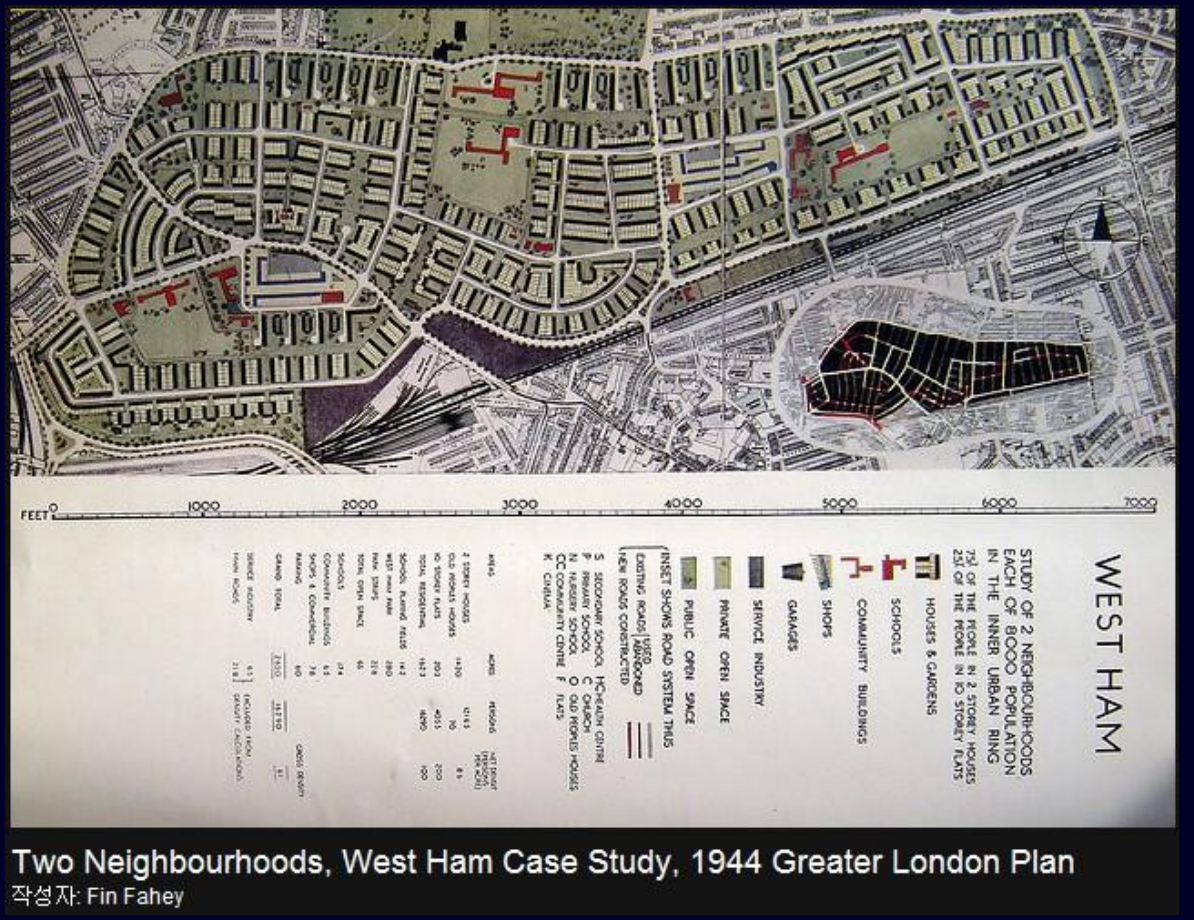
Sir Patrick saw this as a wonderful opportunity to carry out an extensive programme of slum clearance, as the Luftwaffe had already done half the job for him…



http://www.mortgagestrategy.co.uk/the-men-who-changed-the-face-of-london/182651.article
http://www.cyber-heritage.co.uk/history/plan.jpg

Greater London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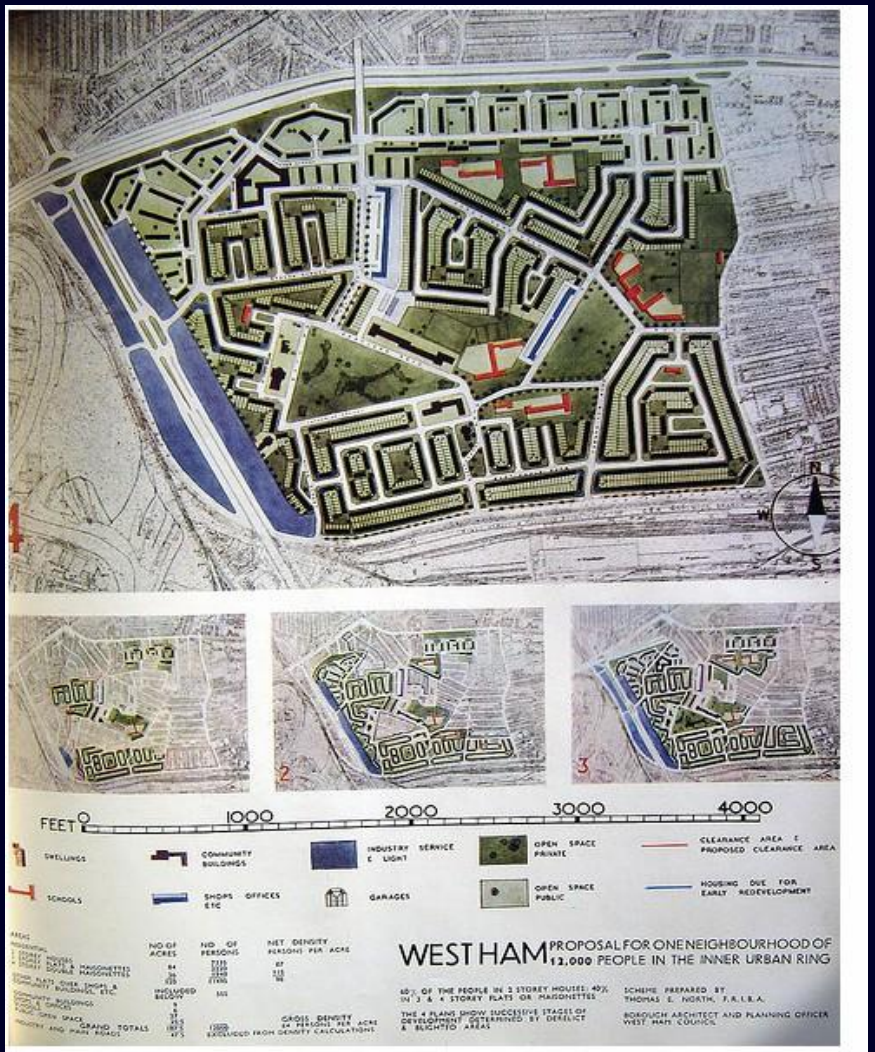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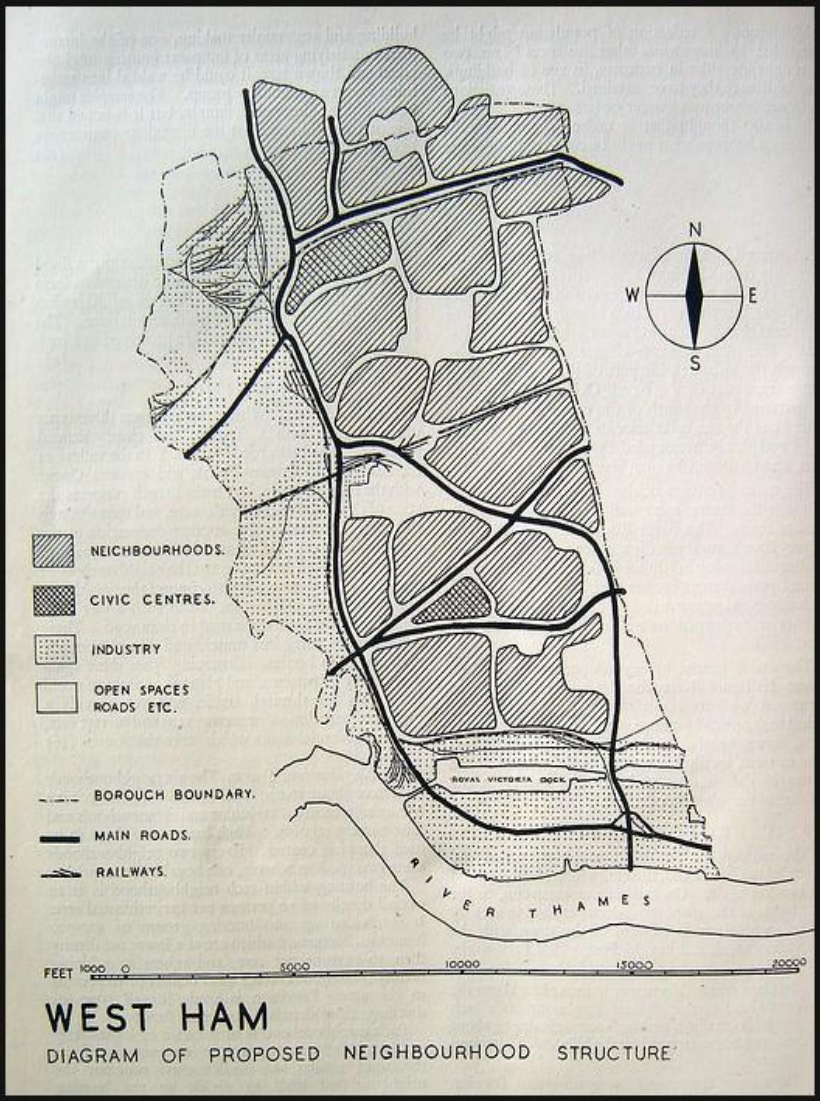
Two Neighbourhoods, West Ham Case Study, 1944 Greater London Plan
작성자: Fin Fahey

http://www.flickr.com/photos/albedo/1351575706/in/set-72157601925818054/

Greater London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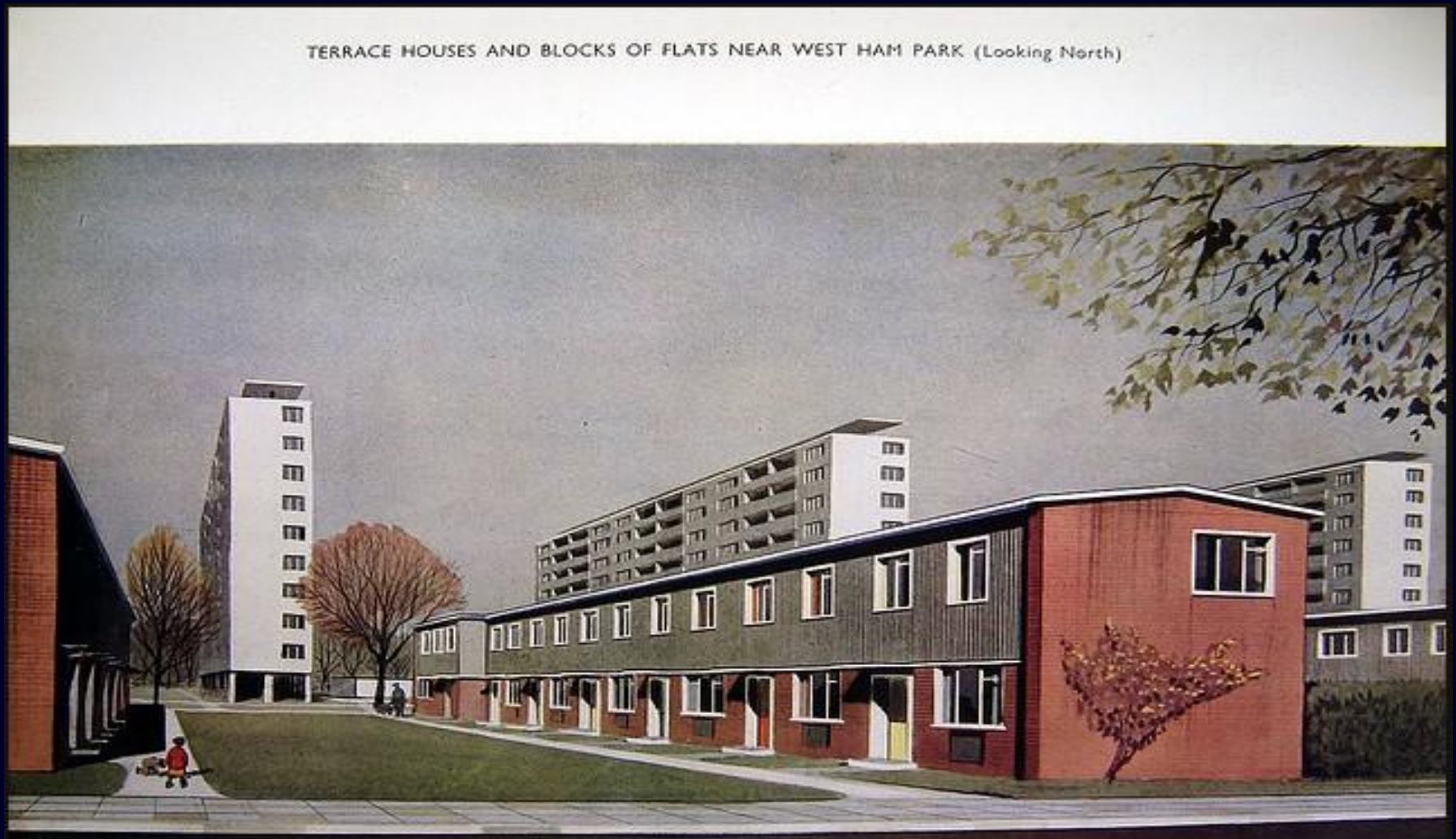


A Neighbourhood, West Ham Case Study, 1944 Greater London Plan



Neighbourhood map, West Ham Case Study, 1944 Greater London Plan
작성자: Fin Fahey

Greater London Plan



Housing, West Ham Case Study, 1944 Greater London Plan
작성자: Fin Fahey

Greater London Plan



Pedestrian Precinct, Ongar Case Study, 1944 Greater London Plan

작성자: Fin Fahey

Greater London Plan



The New Towns Bill was tabled in the Commons in April 1946, and received Royal Assent on 11 November 1946. On the same day, against considerable local opposition, the first new town was designated at Stevenage in Hertfordshire.

The interest shown by residents of Stevenage in proposals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town was considerable. (Stevenage Museum)
http://www.idoxplc.com/idox/athens/ntr/ntr/cd1/html/pic/v1sv/v1sv001.htm

Shanghai Urban Planning Exhibition Center



flickr.com/photos/97482472@N00/296362368

상하이 도시 계획 전시관은 시내 중심가 인민 광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의 디자인은 전통적인 중국식 성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현대식 해석의 중앙 대칭 구조는 중국의 전통적인 건축 미학을 보여줍니다. 건물의 그리드 지붕은 상하이의 도시 꽃 목련을 상징합니다. 상해 도시계획 전시관은 인민 광장의 가장 인기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상하이 도시 계획 전시관은 공식적으로 2000년 2월 25일에 오픈했습니다. 건축 면적은 약 20,000㎡, 전시 면적은 약 7,000㎡. 전시관은 "도시, 시민, 환경, 그리고 개발"을 전시주제로 상하이시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전통과 현대적인 방법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전시관은 국내외의 5백만명의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전시관은 상하이를 이해하는 "도시의 창"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도시개발의 최신정보만이 아니라, 상하이 시민들의 문화와 예술생활도 보여줍니다. 100 개 이상의 전시회 1,000 ㎡가 넘은 2층 전시관에서는 100개 이상의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계 최고의 예술가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 및 공간 디자이너의 디자인 전시회,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전시회,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탐구와 교육 관련 전시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전시회는 "도시"의 의미를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문화라는 바다에 담긴 도시의 매력과 활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시회는 (낙후된) 지방을 일깨우고, 상하이를 관광하는 방문객들의 예술적인 영감을 받게 할 것입니다.

http://www.supec.org/english/overview.htm

Shanghai Urban Planning Exhibition Center



http://www.cnngo.com/shanghai/play/shanghai-urban-planning-exhibition-center-653083

605㎢ 전체를 1500분의 1로 축소한 모형영상관 오늘 개관



서울역사박물관 3층에 마련된 도시모형영상관. 정식 개관을 하루 앞두고 초청된 관람객들이 서울을 1500분의 1로 축소해 만든 대형 모형을 보고 있다. [박종근 기자]

중앙일보, 2009.08.11, “서울의 야경, 새처럼 날면서 보는 듯.”

류춘수와 안건혁

지금 광화문 역사박물관에선 600년 고도(古都) 서울을 디자인 관점에서 재발견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모두 51개의 건축물과 거리, 상징물들이 선정됐다. 여기에는 상암 월드컵경기장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경기장을 설계한 건축가의 이름은 쏙 빠져 있다.

설계자는 류춘수다. 물론 처음 당하는 설움은 아니다. 그는 월드컵경기장 완공식 행사에 초대받았다. 대통령이 축사를 했다. "이처럼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어 주신 시장, 축구협회장,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공을 세운 여러 명의 이름을 열거했다. 그러나 류춘수란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 맨 앞줄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도. 그는 훗날 이 장면을 독설로 뿜어냈다.

…나는 세종시 논쟁이 벌어지면서 내용물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진 걸 본 적이 없다. `도시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 사람은 더더욱 보지 못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는 정치에 질식당했다. 세종시 설계를 총지휘한 인물이 안건혁 서울대 교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안 교수는 류춘수 류의 독설을 쏟아내진 않는다. 그러나 마음 한 켠 응어리진 게 있다. 2007년 세종시 기공식 날,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주요 인사를 모아 놓고 팡파르를 울렸다. 안 교수도 이 자리에 초청받았다. 그러나 그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내 자리는 어디냐"고 물으니 "저기 뒤 어디 기업인들 있는데 가서 앉아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지금 우리의 정치는 어떤 식으로든 도시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 사람을 구겨 넣겠다는 발상을 한다. 그 반대여야 한다.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정보, 교육, 비즈니스 기능이 집결하며, 지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분출해야 한다. 시민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금 내는 국민에 대한 예의다…

손현덕, 2010.02.21, "[월요아침] 류춘수와 안건혁," MK 뉴스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90646

Abercrombie, Sir Patrick

Abercrombie, Sir Patrick, 1879–1957, British architect and town planner. Professor of civil design at the Univ. of Liverpool from 1915 to 1935 and of town planning at the Univ. of London after 1935, he acted as consultant in the rebuilding and planning of London, Edinburgh, Bath, and other British cities. He was knighted in 1945. His voluminous writing has been of considerable influence in the field of city and regional planning. His books include *The Preservation of Rural England* (1926) and *Town and Country Planning* (1933).

http://www.infoplease.com/ce6/people/A0802133.html

도산(島山) 선생의 이상촌(理想村)

기미 만세운동 이후로 수백 수천의 청년 남녀가, 속속 본국을 탈출하여 해외로 나왔고, 도산(島山)은 이들 한국의 젊은 남녀들이 국혼(國魂)을 상실하지 않고 모국의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외 한족의 정신적, 문화적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이상촌(理想村)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도산(島山) 선생의 이상촌(理想村)은 산과 강이 있고 지미(地味)가 비옥한 곳에 건설되는 2백호 정도의 집단부락이었다. 그 부락은 재래의 한국 농촌과는 달라서, 도로망과 하수도 시설이 구비되며, 가옥 건축양식도 위생과 경제, 미관 등의 측면에서 합리화되어, 도시의 조형미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도산(島山) 선생은 생각했다. 또한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공회당·여관·학교·욕장·운동장·우체국·은행 등의 공공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공회당에는 주민들의 집단생활과 사교생활을 훈련할 수 있는 집회실·오락실·담화실·도서실을 설치해 종래 '제 집구석'의 생활에 젖은 우리 민족의 사회적 습관을 고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단적인 회식과 오락을 통해 사회적 예의와 절제를 훈련하며, 서로 함께 하는 생활을 즐겁고 아름다운 일로 만드는 것이, 마을과 이웃을 사랑하는 애향애린(愛鄕愛隣)의 공동정신이며, 애국정신의 기초라고 도산(島山)은 보았다.

– 정창무, 2005, "도산(島山) 선생의 이상촌(理想村) 건설과 주거복지," [뉴스레터]HOMee~ 통권5, 제12호.
http://www.home1004.or.kr/newsletter/newsletter.htm?readnum=58

도산(島山) 선생의 이상촌(理想村)

"국가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주거는 사람들의 심성을 고양시키며,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육성하고 부여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주거는 만민개업(萬民開業)의 도량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부(國富)를 일굴 수 있어야 한다."



도산(島山)의 이상촌(理想村)은 단순한 주거단지는 아니었다. 이상촌(理想村)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이를 훈련시키는 도량이었으며, 조국의 운명을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경제적 능력을 구비하게 하는 인재양성기관이기도 하였다. 국가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받고 훈련받는 직업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상촌(理想村)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계획이념이었다.

도산(島山) 선생의 이상촌(理想村)

일기일능
(一技一能)

만민개업
(萬民開業)

분공합작
(分工合作)

“ 국가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 일기일능(一技一能)

- 우리 민족 모두가 각자 일기일능(一技一能)

■ 만민개업(萬民開業)

- 모든 사람들이 훈련받은 직업기능을 가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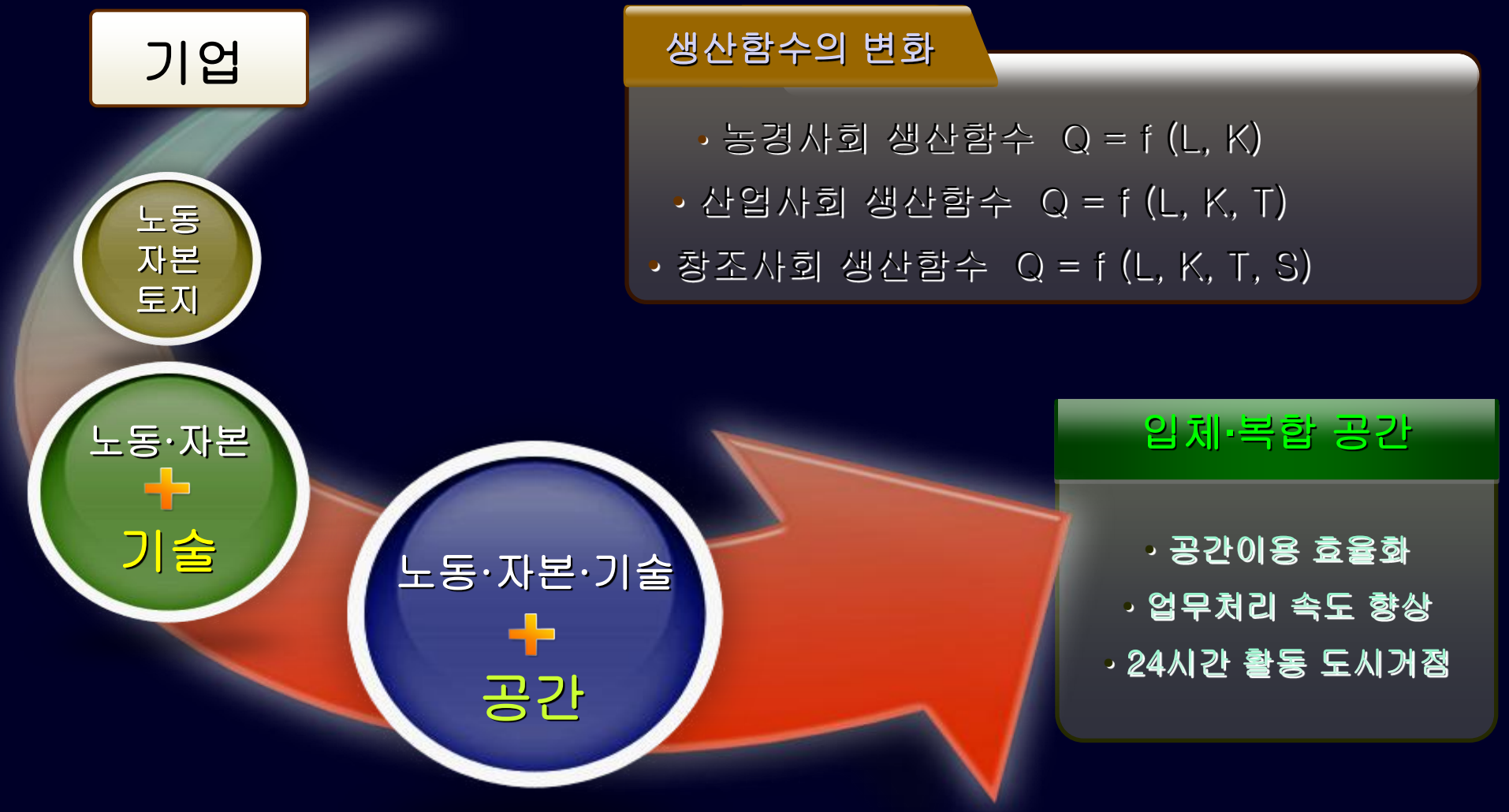
■ 분공합작(分工合作)

- 부락사업의 계획과 경영과 노력을 집단화해야 함

공간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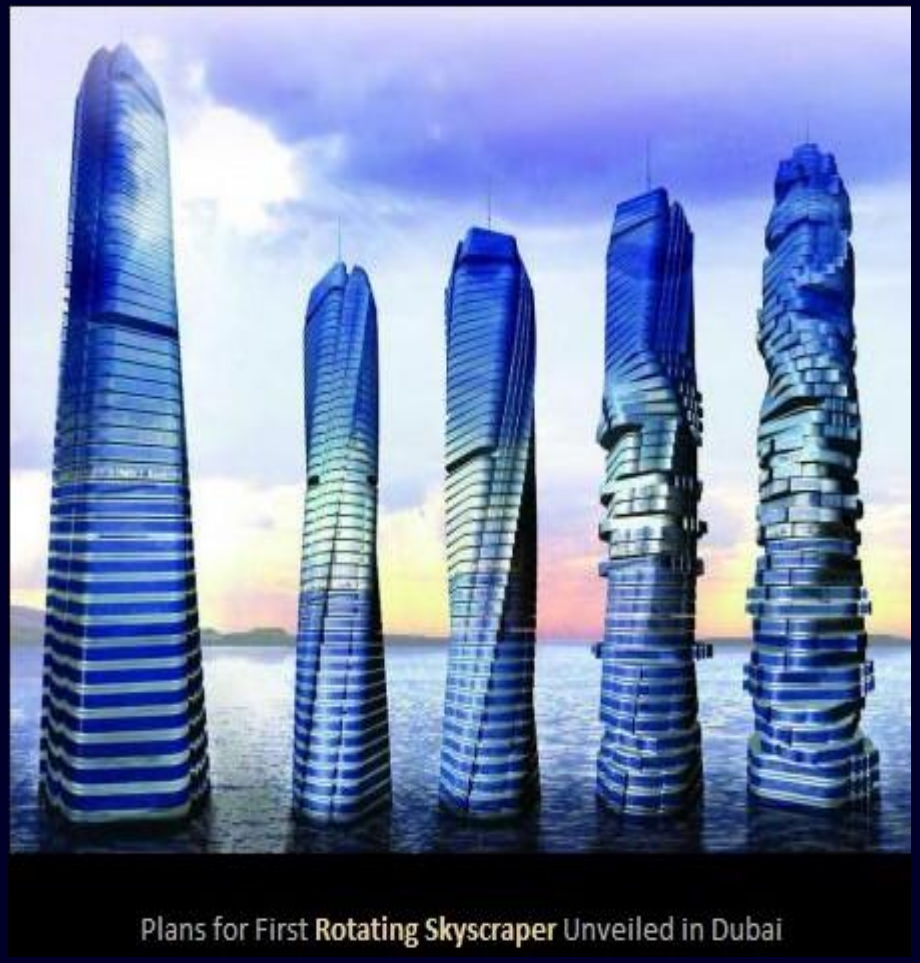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창조사회
• 제1의 물결 • 농업혁명 • 오곡풍양 (五穀豊養) • 자연법칙 • 도구 • 봉건 • 소품종 소량생산 • 그린칼라	• 제2의 물결 • 산업혁명 • 중후장대 (重厚長大) • 정치법칙 • 에너지 • 집권 • 소품종 대량생산 • 블루칼라	• 제3의 물결 • 정보혁명 • 경박단소 (輕薄短小) • 경제법칙 • 데이타 • 분권 • 다품종 소량생산 • 화이트칼라	• 제4의 물결 • 창조혁명 • 낙미애진 (樂美愛眞) • 문화법칙 • 아이디어 • 최적 • 다품종 단품생산 • 골드칼라
기능혼재	기능분화	기능전문화	기능복합
자연 평면	단일기능의 수평확대 (대형자동차조립공장)	단일기능의 수직확대 (고층사무실)	복합기능의 수직확대 (입체•복합)

미래의 도시 – 생산요소로서의 공간



Green Giants – 2030년 미래도시는?

-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경제국의 수요로 에너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 지식산업시대에 집적경제의 이익을 누리는 도시는 더욱 거대화, 교외 인구감소
- 사장과 직원들이 대중교통이 발달한 상업중심지에 함께 모여사는 것이 경제적 효용 극대화
- 대중교통중심지에 업무지구가 밀집
- 도심지내 지상과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 건물의 증가



– 뉴스위크 한국판, 2010.9.1, “Green Giants – 2030년 미래도시는?”

http://adayinthalifeof.wordpress.com/2008/07/09/rotating-building-in-dubai/

일과 생활의 경계가 사라진다

뉴스위크는 마이클 말찬 아키텍쳐, 겐슬러, 시티랩-UCLA에 LA의 미래 모습 전망을 요청

1. LA의 건축밀도는 높아지고 입체복합 공간과 같은 다용도 건물 증가
2. 주거와 고용의 분리 대신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주거와 업무 복합 중심 허브 등장
3. 통근노선은 공원, 수영장, 쇼핑센터 등을 통해 연결됨
4. 일과 생활이 구분 없이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



저 셔먼 아키텍처와 시티랩-UCLA:
'타겟 타운'에서는 대형 할인매장을 중심으로
색공간과 극장 등이 들어선다.

- 마이클 말찬은 "주거와 업무가 복합된 주상복합" 제안
- 겐슬러 건축사들은 "미래의 사회적 교류와 학습, 프로젝트 협업이 무미한 사무용 건물보다는 사교클럽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
- 시티랩-UCLA는 대형할인매장을 중심으로 녹색공간과 극장들이 들어가는 입복제안

– 뉴스위크 한국판, 2010.9.1, "L.A. Residential – 일과 생활의 경계가 사라진다"

풀어야 할 과제들- 과제 정하기

닫힌 도시	열린 도시	어떻게?
성장과 보전의 갈등	녹색 도시	녹색은 무엇?
정치에서 계획으로	비전의 공유	전문성 인정받기
껍질로서의 도시	생산요소로서의 공간	입체복합공간연구의 과학화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역사를 통해 현실을 다시 보려는 여유는 생겨나지 않은 것 같다.

관변 도시계획은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기술관료주의 수단적 합리성에 매몰되어 역사적, 성찰적 시각을 키우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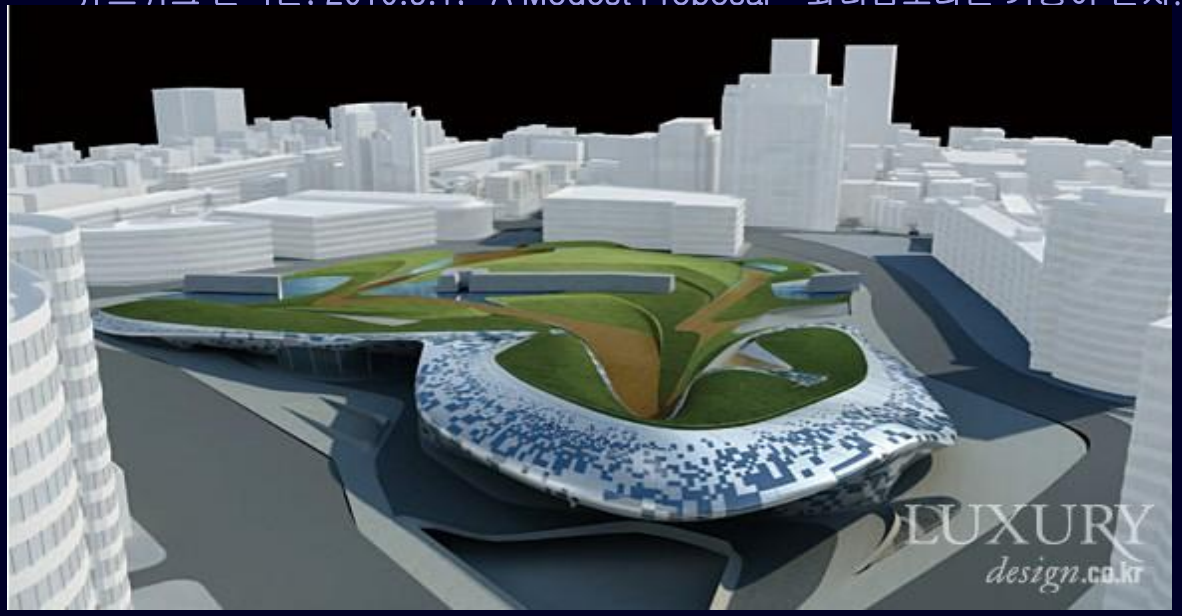
재야 도시계획은 그것대로 “자본주의 생산양식”, “계급갈등”, “구조” 등의 거대담론에 사로잡혀 현실도시로 눈을 “낮추기”를 피하고 행위자의 역할을 인정하는데 인색하다.

강홍빈, 2005, “[서평]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 – 손정목 저, 한울,” 국토계획 40(5), pp. 230-1.

풀어야 할 과제들 – The Bilbao Effect

- 1997년 스페인 빌바오에 프랭크 게리가 지은 구겐하임 미술관이 큰 성공을 거둔 후 건축계에 불어닥친 대형건물 건축붐
- 대표적으로 자하 하디드의 건축물 같은 거창하고 화려한 디자인의 건물
- 이 현상은 1990년대 말에 시작돼 2008년 경기침체로 끝난 호황의 산물
- 중국은 아직도 눈길을 끄는 건축물을 선호, '새둥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눈길을 끌었던 2008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은 올림픽이 끝난 뒤 싸구려 소매 상점들의 집합소로 전락해 정체성의 위기에 처했지만 말이다.

– 뉴스위크 한국판, 2010.9.1. "A Modest Proposal – 화려함보다는 기능이 먼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파크 프로젝트에 과도한 설계비가 투입됐다는 지적이 많다(서울시는 애초 79억 원을 설계비로 책정했지만 건물 내.외부에 쓸 외장 패널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해 설계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약 136억 원으로 설계비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럭셔리 (2008년 10월호) | 기자/에디터 : 정성갑 / 사진 : Zaha Hadid, Ltd., LoLondodon

풀어야 할 과제들 – The Bilbao Effect

- 의미 없이 외형만 거창한 건축의 시대는 끝나고 환경을 생각하는 청정디자인의 시대가 시작됐다.
- 현재 세계 최고의 건축가 대다수가 도시개조사업에 참여한다. 고가의 아파트 등 기발한 디자인의 고층건물들을 원하는 개발업자의 요구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를 생각하는 마스터플랜 설계에 참여하는 건축가가 늘어나고 있다.
- 이런 계획은 사회, 경제, 정치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 지리적 특성과 교통, 대중을 위한 공간 등이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 렘쿨하스 : “고객들이 도시계획에 중점을 두는 이유가 꼭 경제적인 데만 있지는 않다.”
  “가치관의 차원에서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 “도시계획은 투자의 이상적인 형태”
- 더욱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도 거시적 차원의 건축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 MoMA(뉴욕현대미술관)의 전시회에서 ARO와 드랜드스튜디오 같은 팀들은 맨해탄 남부가 물에 잠길 경우에 대비한 설계를 하려고 건축가와 조경전문가, 도시계획가, 공학자들을 동원했다.
- 의미 없이 외형만 거창한 건축의 시대는 끝났다.
- 이제는 현대생활의 복잡성을 책임감 있게 반영하는 사려 깊은 디자인이 나와야 하는 시대다.

– 뉴스위크 한국판, 2010.9.1, “A Modest Proposal – 화려함보다는 기능이 먼저!”

감 사 합 니 다.